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이 현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2. 11.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어명근

1. 출장지역: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와 훈춘시

2. 출장기간: 2012. 11. 12(월) - 11. 14(수) (2박 3일)

3. 출장 목적; 중국의 황우 지역화 동향 및 생산/유통실태 조사

4. 출장 일정

일시	일정	비고
2012.11.12(월) 09:15 10:40 14:00	출국 중국 연길시 도착 동물전염병지역화정책 면담	항공 연길시 나경호텔 허용춘 연변동물질병관리소장
2012.11.13(화) 09:00-14:00 15:00-17:00	황우 기업농 방문 조사(훈춘시 반석진) 황우 사육농가 방문 조사(훈춘시 반석진)	연변천일축산유한회사; 노명옥 부장 한승남 사장
2012.11.14(수) 11:40	귀국	

5. 출장 결과

-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 정책 동향과 전망(연변주동물역병예방통제중심 허용춘 주임)
 - 중국의 5대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 건설 정책은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세부적인 지침과 자료가 연변자치주에는 배포되지 않았음.
 - “동물역병”은 전염병과 기생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연변주동물역병예방통제중심”은 중국 농업부 산하 수의부의 소속기관인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길림성 정부와 연변자치주의 관할하에 있음. 조직은 검역과, 정보과, 실험실로 구성됨. 13인의 직원 가운데 수의사가 12명임.
 - 중국의 가축질병예방 업무는 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현내(縣內) 향진 수의소 산하의 촌(村)방역원(촌당 1개소)이 백신 접종 등을 담당하고 있

- 음. 구제역과 AI, 뉴캐슬병, 돼지창이병 등 주요 질병 백신은 정부가 무상 제공하며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 접종하며 항체검사 등을 실시함.
- 촌이나 향진에서 가축질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현(縣) 중심에 이어 주(州) 중심이 현장에 출동하여 검사하고 구제역과 AI 등 중요 질병으로 판단되면 성과 중앙에 24시간내 보고하여 국가시험소에서 가검물을 재검사함. 성(省) 중심에는 매월 정기보고함. 최근 연변자치주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었음.
 -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와의 차이는 국가의 투자 규모와 관리수준임. 시범구 지역은 핵심 지역 주위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생가축과 도축물의 지역 이동시 방역증과 산지검역증을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07년 동물위생감독소가 동물역병예방통제중심에서 분리되어 산지와 도축장, 시장 입점시 검역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음. 2009년 부정식품 제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현장(縣長) 직속으로 사법권을 보유하고 현내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사진 1> 연변주동물전염병예방통제중심

- 기업형 축산농가 황우 사육 실태(연변천일목업유한공사 노명옥 부장)
- 사육규모는 약 1,000두이며 통풍이 잘되는 축사와 전체 면적 약 450헥타에 이르는 초지에서 30명의 직원이 기계를 이용한 분뇨처리와 조사료 수확 등 사육에 종사하고 있음(사진 2와 사진 3).



<사진 2> 기업형 황우 사육농장의 축사



<사진 3> 기업형 황우 사육농장의 초지

- 사료는 자체 재배하는 옥수수 등을 활용한 부숙사료와 외부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 및 볏짚을 활용함. 부숙사료는 5×5×25미터 크기의 콘크리트 터널에 옥수수과 목초, 소금 등을 섞어 기계로 다져가면서 적치한 후 비닐로 덮어 발효시킴(사진 4).



<사진 4> 부숙사료 저장 및 제조 시설

- 사육기간은 약 30개월이며 거세우로 사육, 출하하는 탓에 중량이 지체되어 출하도체 중량이 일반농가보다 약 100kg 작은 650kg 수준
- 송아지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자체 출산한 송아지 외에 외부 농가의 송아지를 선별하여 위탁 사육도 겸하고 있음. 위탁 사육농가에는 사료만 제공하되 10개월령에 시중 가격보다 15-20%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자체 사육함.
- 자체 도축장에서 월 20두 정도 도축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북경, 상해, 대련 등지의 호텔과 직매장으로 출하(주로 항공 운송). 출하브랜드는 늘푸름(藍之苑)이며 kg당 가격은 꽃등심 200위안, 우둔 80위안 등임.
- 질병 방역은 월 1회 여러 가지 약종별 백신을 주사하고 있으며 구제역 등 주요 질병의 백신은 정부가 제공함. 농장 설립된 1996년 이후 구제역 발생 없음.

- 사료가격 상승으로 방목 아니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고급육 생산을 위한 황우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고급우 유전자 생산 및 보급인 동시에 사료 등 적절한 비육기술임.

○ 일반 축산농가 황우 사육 실태(훈춘시 반석진 한승남 사장)

- 현재 51두를 사육하고 있음. 송아지 대신 3배 출산 후 폐기하는 암소를 구입하여 단기 사육 후 출하함. 2명의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인당 월 1,800위안을 인건비로 지출
- 두당 평균 7~8,000위안에 구입하여 사료비와 인건비 약 2,000~3,000위안이 소요되며 평균 15,000위안에 출하하므로 두당 평균 5,000위안 수익 남음. 고급육 아닌 일반육으로 중간 수집상에 판매함.
- 월 1회 여러 가지 질병별로 백신을 주사하며 지난 몇 년간 구제역 발생 없었음.

○ 황우 유통 실태(연길시 서시, 동시, 연길백화점 등)

- 연길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시와 동시에서 육류는 대부분 매대에 진열한 상태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절단, 판매하고 있음(사진 5).



<사진 5> 재래시장의 쇠고기 판매매대

- 소매가격은 소 우둔 54위안(kg 당), 양 60위안, 돼지 20위안, 닭 16위안 수준임. 위생상태가 미흡해 보이지만 판매속도에 따라 냉장고에서 꺼내 진열하기 때문에 변질 우려는 거의 없음. 쇠고기의 숙성을 위해서는 영하 4도 정도에서 냉장보관해야 하므로 재래시장에서는 어려움.
- 백화점에서는 대부분 포장육 상태로 판매하며 부위별로 가격이 다양함. 최고급 쇠고기(kg당 최고 800위안 수준)는 물량이 적어 대체로 오전중에 매진되며 일반육의 가격대는 67~96위안 수준임. 양고기는 62위안, 돼지고기는 25위안으로 재래시장보다 쇠고기는 평균 25위안, 돼지고기는 5위안 정도 높은 가격대임.
- 황우사육기업(룡정백산분복육업)의 직매장에서는 등심 1등급 소매가격이 88위안으로 백화점 일반육의 고급부위에 비해 약간 낮았음. 중국의 소비자들도 쇠고기는 구이용과 요리용 등 부위별로 소비하는 추세임(사진 6).



<사진 6> 쇠고기 부위별 명칭과 용도

6. 총평

- 연변지역의 황우는 중원황우(8개종) 및 남방황우(14개종)와 함께 중국의 3대 황우 품종으로 분류되는 북방황우(5개종) 계열에 속함. 현재 사육실태는 방목과 부숙사료 및 배합사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소득 증대에 따른 고급육 수요 증가에 따른 고품질 황우 생산을 위해 부숙사료와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고품질 황우 생산을 위해서는 유전자 개량 등 육종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양기술 개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사료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고급육 축산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 중국의 주요 가축질병 및 위생 관련 기관으로 ‘동물역병예방통제중심’이 가축전염병과 기생충 관련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육류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물위생감독소’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부정불량식품 생산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사육되는 모든 황우를 대상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비한 백신을 상시 접종하고 있음. 백신 상시 접종 지역은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무질병 지역’으로 인증받더라도 “비면역 무질병 지역”이 아닌 “면역 무질병 지역”으로 분류됨. 따라서 향후 FTA 협상에서 중국의 5대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시범구 건설과 연계한 동식물 검역의 지역화 인정 요구에 대비하여 시범구내 백신 접종 여부 등 정확한 실태 파악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 상 -